

일본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과 전망

-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큰 폭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최근 0.5%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 잠재성장률 하락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지지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 앞으로도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R&D)투자 성과 등을 바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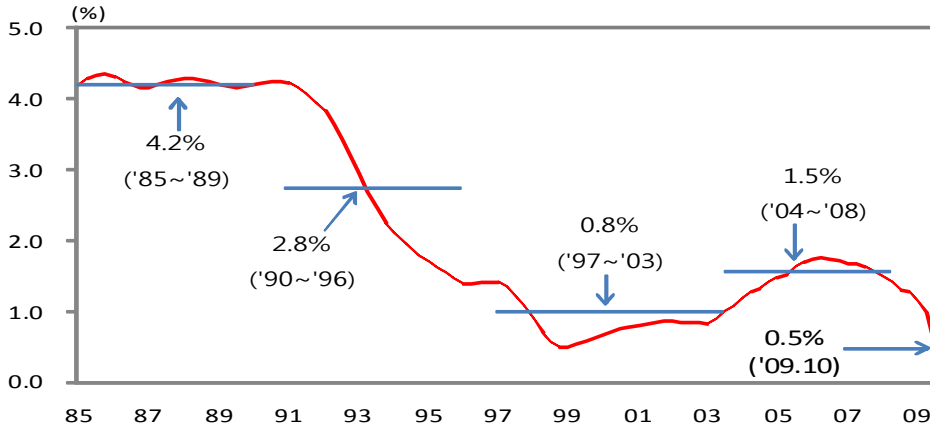
1. 일본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낮아지기 시작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0.5% 정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일본은행은 연 2회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발표. 최근(2009.10.31일) 일본은행은 2009년중 잠재성장률을 종전의 1.1%에서 0.5%로 하향 조정

- 다만 세계교역 확대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2004~08년중에는 일시 반등

일본은행의 잠재성장률 추계 추이



자료 : 일본은행

- 일본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주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부진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요소생산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지지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 $Y = (1-\alpha) K + \alpha L + TFP$,

Y: GDP, K: 자본 투입량, L: 노동투입량, TFP: 중요소생산성

α : 노동분배율, $1-\alpha$: 자본분배율

- ** 자본과 노동의 양적 증감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력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기술진보,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 등을 포괄. 생산함수 접근법에 의한 잠재GDP 추정시 통상 잔차의 추세치로 추정.

- o 1980년대 후반(4.2%)에서 2009년(1.1%)까지 잠재성장률은 3.1%포인트 하락했는데

요인별로 보면 자본투입이 -1.7%포인트로 마이너스 기여도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노동투입(-0.9%포인트), 중요소생산성(-0.7%포인트)의 순

일본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연평균, %, %p)					
	85~89(A)	90~96	97~03	04~08	09(B) ¹⁾	B-A
잠재성장률	4.2	2.8	0.8	1.5	1.1	-3.1
자본	1.7	1.5	0.5	0.5	0.2	-1.7
노동	0.5	-0.7	-0.6	-0.2	-0.4	-0.9
중요소생산성	2.0	1.4	0.9	1.2	1.3	-0.7

주 : 1) 가장 최근 통계는 2009년 10월에 발표된 0.5%이나 요인별 기여도가 제시되지 않아 2009년 4월 발표된 이전 통계를 이용

자료 : 일본은행

① 자본투입*의 부진

- * 자본스톡[전기 자본잔액+금기 총고정자본형성(설비 및 건설투자)-감가상각]
- × 자본의 가동률

- 일본의 총고정자본형성(설비 및 건설투자, 국민소득계정 실질GDP 기준)은 90년대 들어 크게 부진

일본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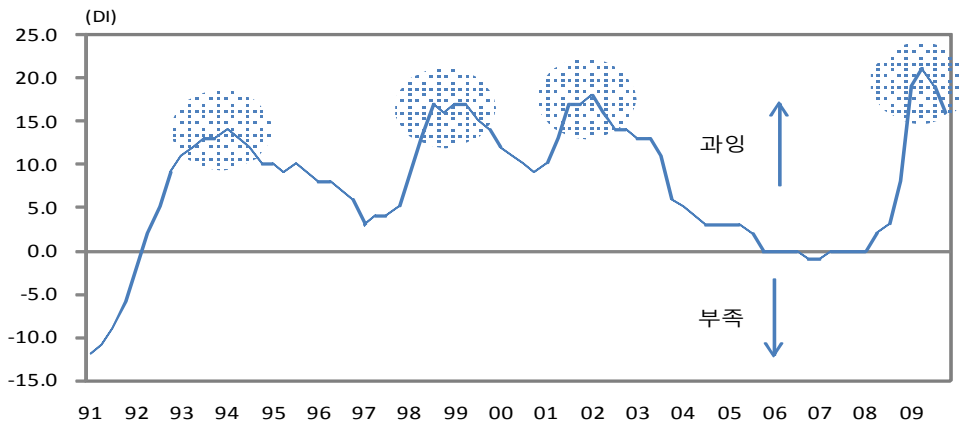
(연평균, %)

	85~89	90~96	97~03	04~08	09.1~9
총고정자본형성	8.9	1.4	-1.9	0.3	-14.9
설비투자	11.2	2.9	-0.0	3.2	-23.2
건설투자	7.0	0.2	-3.7	-2.4	-6.8

자료 : 내각부

- 80년대 후반 매년 10% 이상 증가한 설비투자로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였던 시점에서 수요가 급감하자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랭

설비투자 과잉감에 대한 BOJ 단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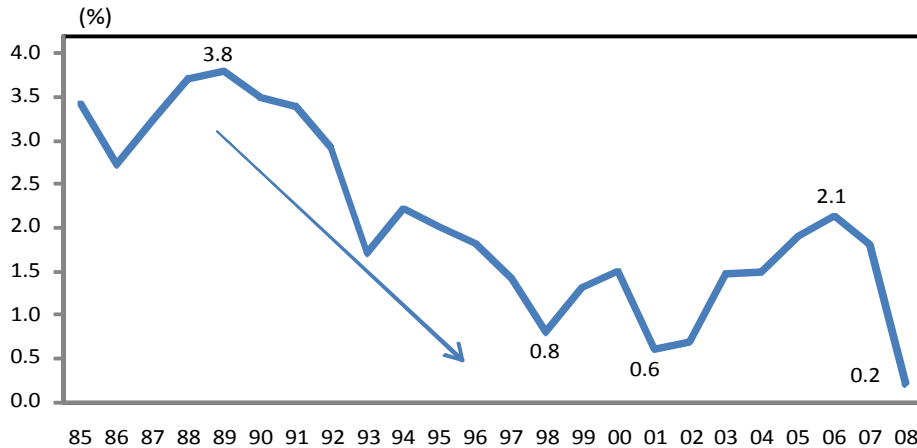
주: 과잉판단(과잉-부족) DI

자료 : 일본은행

- 또한 기업들은 앞으로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것임을 예상하여 신규투자를 자제

- 일본 기업의 향후 3년간 GDP 기대성장률은 1989년 3.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말에는 0%대까지 하락

일본 기업의 기대성장률¹⁾



주: 해당시점에서 법인기업이 예측한 향후 3년간 GDP 성장률
 자료 : 내각부 기업행동양케이트 조사

- 장기불황으로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여력도 위축

- 1985~89년중 기업의 경상이익은 연평균 14.4%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

일본기업 경상이익증가율 추이

	(연평균, %)			
	85~89	90~96	97~03	04~08
경상이익증가율	14.4	-3.6	6.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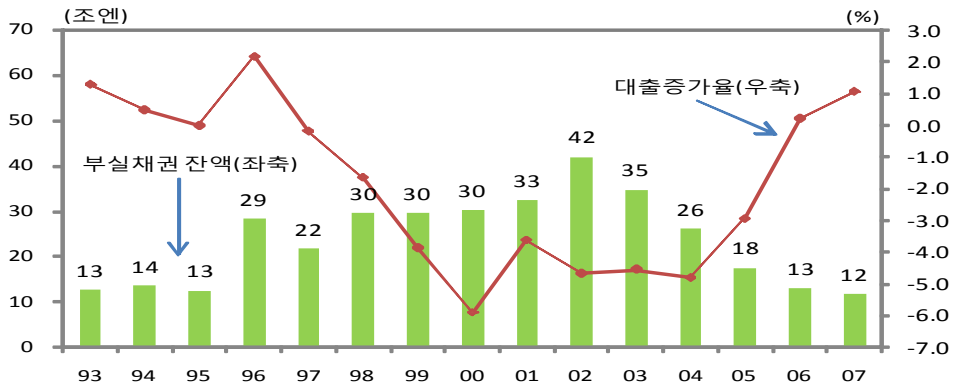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 한편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로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

* 부실채권 증가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훼손 → 은행의 리스크 회피성향 증가 → 금융 중개 기능 저하

- 90년대중 계속 증가하던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는 2003년이 되
서야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대출증가율도 2006년부터 플러스로
전환

일본 부실채권 잔액 및 대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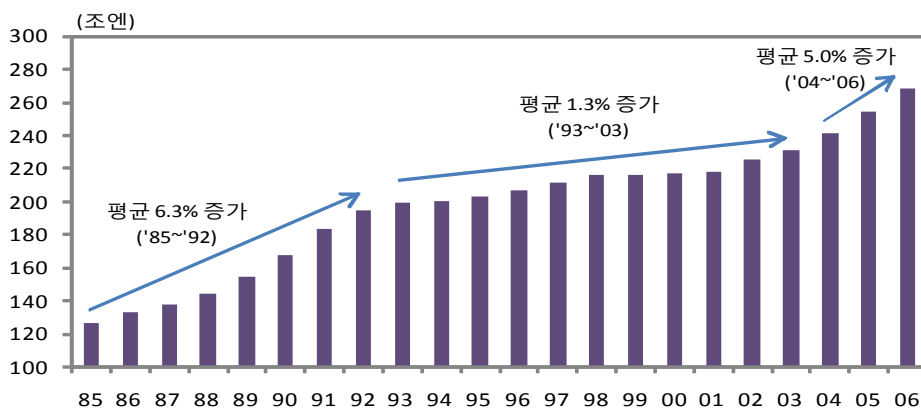
자료 : 일본 금융청

- 이에 따라 1985~92년중 연평균 6.3%씩 늘어나던 자본스톡(제조업 기준)이 1993~2003년중에는 1.3%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으로써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

- 다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2004~06
년중에는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

* 2007년 이후 데이터가 포함되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일본 제조업 자본스톡 추이



자료 : 일본경제산업연구소

② 노동투입*의 부진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x 평균가동률(취업률 x 1인당 노동시간)

-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인구증가율 정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대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반전

일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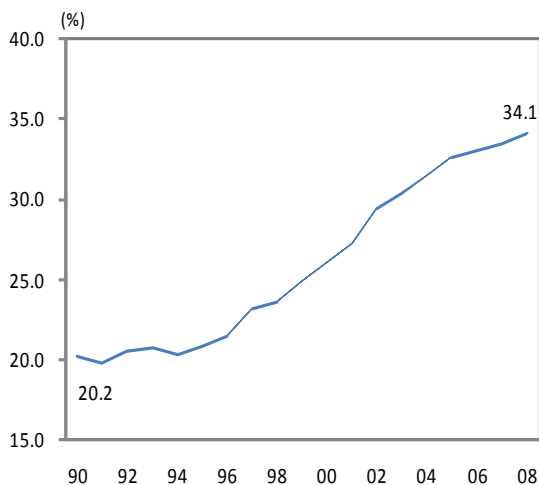
			(연평균, %)
70~79	80~89	90~99	00~08
1.0	0.9	0.1	-0.6

자료 : 총무성

- 인구의 양적 감소에 더하여 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도 노동투입의 부진 요인으로 가세
- 경비절감을 원하는 기업과 자유로운 시간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일부 일치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1990년 20.2% → 2008년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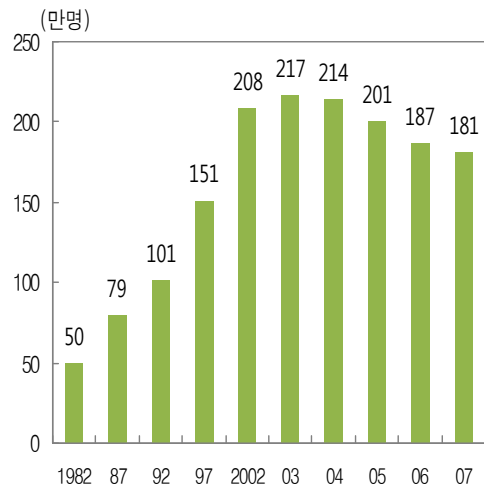
* 특히 청년층에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프리터(Freeter)와 같은 특수 노동층이 급증

비정규직 비중 추이



자료 : 총무성

프리터 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 비정규직 확대는 1인당 노동시간 축소로 연결*

* GDP갭과 잠재성장률의 신추계, 일은 리뷰 2006-J-8, 일본은행, 2006.5

일본 1인당 노동시간 추이

(시간/월, 월평균)

86~89(A)	90~96	97~03	04~08	09.1~11(B)	B-A
177.2	163.4	154.1	150.5	144.4	-32.8

자료 : 후생노동성

2. 향후 전망 및 과제

- ◆ 향후 일본이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 따라서 일본은 발달된 기술력 등을 토대로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장애요인들도 많아 이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노동투입은 계속 부진할 전망)

- 일본의 노동력 공급 정체 또는 감소추세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큰 흐름으로서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11~30년 연평균 0.5%씩 줄어들어 주요 선진국중 인구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주요선진국 인구증가율 예상

(연평균, %)

	1990~2010년	2011~2030년
일본	0.2	-0.5
미국	1.1	0.8
영국	0.4	0.6
프랑스	0.5	0.4
독일	0.2	-0.1
OECD 평균	0.7	0.4

자료 : OECD

-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중도 주요 선진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주요선진국 65세이상 인구비중 예상

(연평균, %)

	1980~89	1990~99	2000~09	2010~2019	2020~2029
일본	10.2	14.4	19.9	26.2	30.4
미국	11.9	12.6	12.5	14.4	17.9
영국	15.2	15.8	16.0	17.8	20.2
프랑스	13.4	15.0	16.4	18.3	21.7
독일	14.9	15.4	18.5	21.2	24.7
OECD 평균	11.0	12.3	13.8	16.2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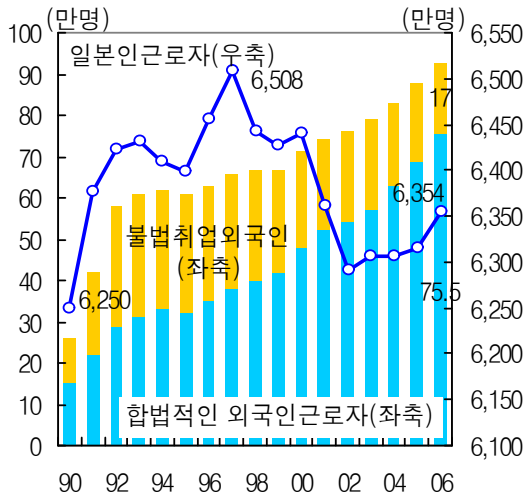
자료 : OECD

- 부족한 노동력 보완을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실시, 적극적인 외국인근로자 수입정책 등이 필요하나 일본사회의 보수적 성향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외국인근로자는 1991년 3월 26만명에서 2007년 3월 93만명으로 증가했으나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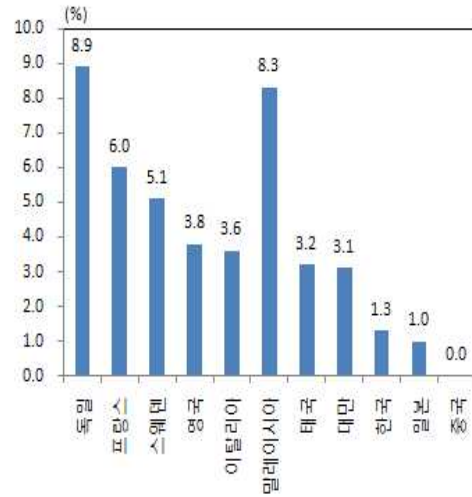
* 일본 1.0%, 독일 8.9%, 프랑스 6.0%, 한국 1.3%(OECD 2007년 기준)

일본 외국인 근로자수 변화



자료: 후생노동성

주요국 외국인근로자 비율 비교¹⁾



주 : 1) 2007년 기준
자료: OECD

(자본투입은 경기상황에 따라 등락은 있겠으나 잠재성장력 강화에 주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

- 아직도 일본기업들은 보유설비가 과잉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사회 전반의 기업가 정신도 많이 약화되어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국가별 기업가 정신 평가¹⁾(2007년 기준)

	(응답비율, %)			
	사업활동 계획있음	사업기회가 있다고 생각	사업능력이 있다고 생각	사업실패확률
미국	15	20	43	24
일본	2	7	9	38
영국	24	36	44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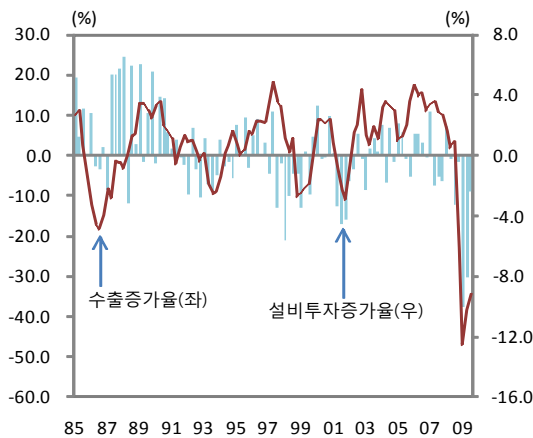
주 : 1)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 OECD

□ 한편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산업위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불안정한 요인

○ 수출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간 상관관계는 1985~89년중 0.33에서 2004~2009년 3/4분기 중 0.75로 급격히 상승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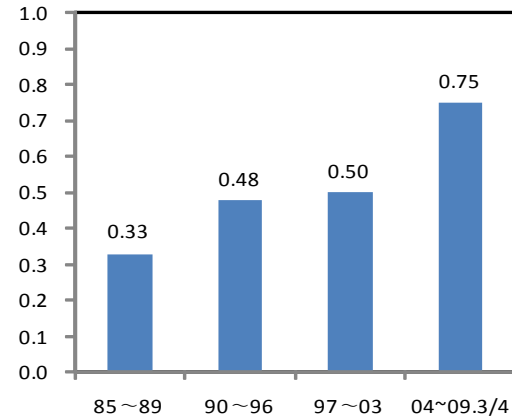
외부요인에 의해 수출이 증가해야만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 CEIC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율간 상관도



자료 : CEIC

○ 이처럼 설비투자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 엔화가치의 등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의 진폭이 커져 안정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02~07년중 일본경기 상승은 미국의 소비호조에 따른 수출증가-설비투자 확대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으로 2008~09년중 일본경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미국의 소비침체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감소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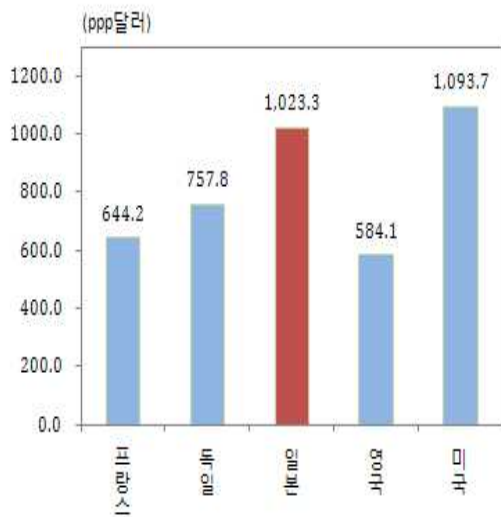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일본은 R&D 투자규모, 특허 보유, 제조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강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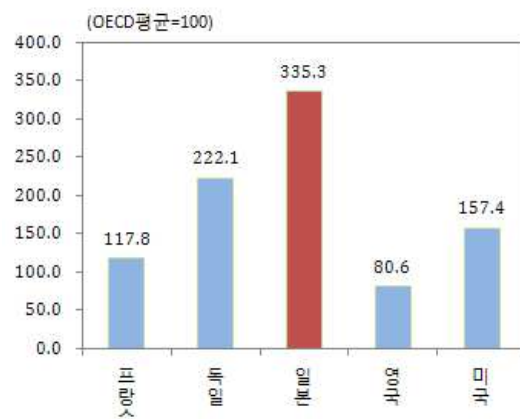
○ 또한 핵심부품·소재, 제조장비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디지털 가전산업에서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 소재 및 원재료(66%), 부품(32%), 제조장비(49%), 2005년 기준, 經濟産業省(2006.6)

주요국 1인당 R&D 투자규모(2005년) 주요국 100만명당 특허보유 건수(2007년)



자료 : OECD



자료 : OECD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총요소생산성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

○ 일본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소재 등은 하드웨어 산업으로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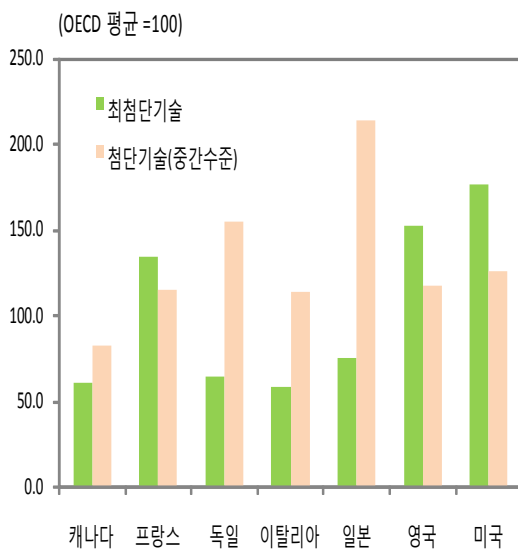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시장창출 가능성이 무한한 소프트웨어, 바이오산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음

— 자동차, 반도체 등 중간수준 기술의 제품 수출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공, 의약품 등 최첨단기술제품은 미국, 영국 등보다 수출액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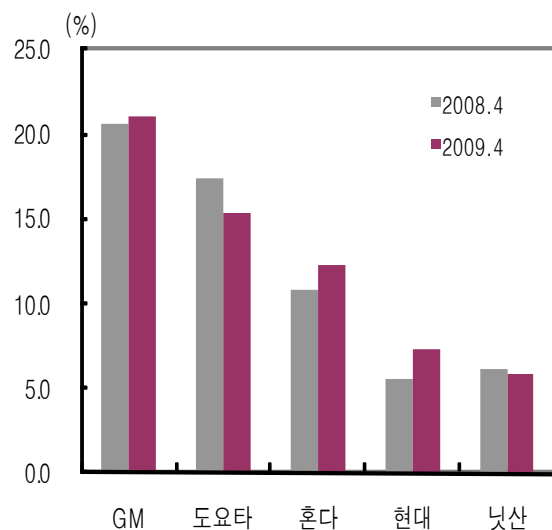
· 최근에는 일본의 주력업종인 일부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한국 등 후발주자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독점적 지위가 동요

기술 수준별 무역수지(2007년중 기준)



자료: OECD

미국자동차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Automotive News Inc

— 이에 따라 일본의 글로벌 브랜드 숫자도 적은 편

국가별 100대 브랜드 보유 현황

	(개사)		
	2001	2005	2009
미 국	62	53	51
독 일	7	9	11
프랑스	3	7	9
일 본	6	7	7
한 국	1	3	2

자료 : Business Week, Interbrand

o 이처럼 일본에서 새로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 뿌리 깊은 정치-관료-경제계의 3자 유착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Zombie firm)에 대한 연명지원이 지속되면서 신생 미래 첨단산업의 기업 출현을 저해*

* 한계기업의 연명지원이 건전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Caballero, Ricardo J., Takeo Hoshi and Anil K. Kashyap, 2008)

한편 90년대 장기불황기중 경기부양자금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도로 및 교량 건설 등 공공사업에 투자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Lost Decade in Translation:What Japan's Crisis could Portend about Recovery from the Great Recession, IMF, 2009.12)

— 창업과 관련된 행정규제가 많아 신생기업의 생성 및 발전을 저해

일본과 미국의 창업 환경 비교

	(%)				
	행정절차 (단계)	창업소요기간 (일)	비용(%) ¹⁾	자본조달 편의성(순위)	직원고용 편의성(순위)
일 본	8	23	7.5	12	17
미 국	6	6	0.7	5	1
독 일	9	18	5.7	12	142
싱가포르	5	5	0.8	5	1

주: 1) 단위자본 당 수익대비 비용

자료: World Bank

-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상의하달식 기업 문화 등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벤처기업의 생성이 어려운 풍토

⇒ 정치-관료-경제계의 유착관계 청산, 복잡한 행정규제의 대폭 감축,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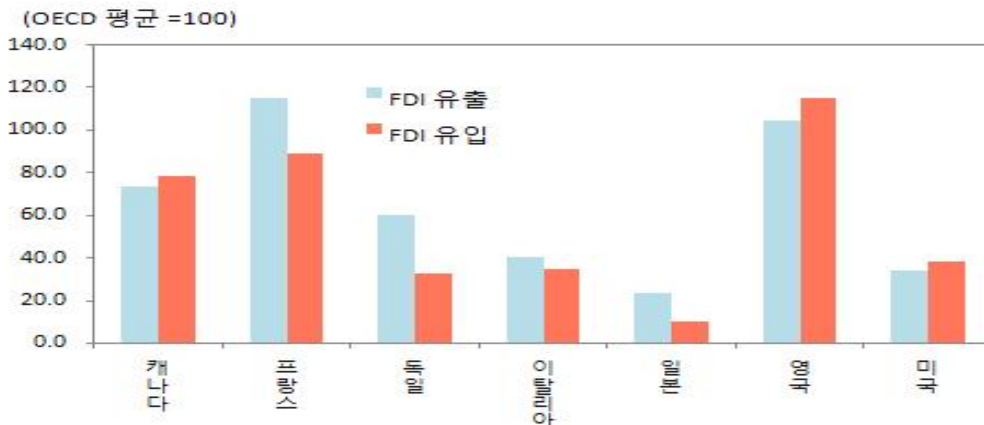
②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

o 일본은 G7 국가중 FDI의 對GDP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 대다수 국가들이 외국의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FDI 유출입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특히 외국자본의 유입이 유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

GDP 대비 FDI 유입·유출 현황



주: 각국의 GDP 대비 FDI 비중을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
자료: OECD

- 이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과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기회를 놓칠 위험

- o R&D투자를 보더라도 각국은 공동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어서 세계적인 연구 조류를 습득하는데 한계

일본의 국제적 공동 연구 현황

(OECD 평균 = 100)

	해외 공동연구 특허 취득	해외 특허	해외 R&D 투자 유치	박사과정 해외유학생
미국	39.7	56.3	-	147.0
일본	0.0	7.0	1.5	92.1
영국	109.8	82.4	272.7	240.6
독일	66.7	65.6	36.6	-

주: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
자료: OECD

-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③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의 구축

- o 일본은 부품·소재의 생산—설비생산—조립생산—판매의 전과정이 주로 국내기업만으로 이루어지는 풀세트형 비즈니스 모델(선단식 경영)을 토대로 성장해 왔으나

전세계적인 아웃소싱이 일상화되어 있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기존의 모델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애플社 I-Phone의 경우 설계는 미국, 조립·생산은 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세계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크게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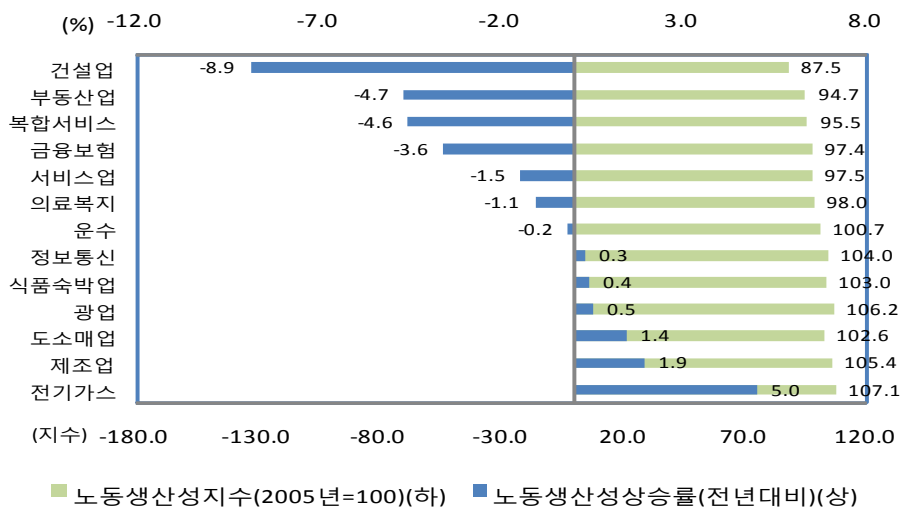
* 전세계 누구나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앱스토어(App Store)를 운영하여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I-Phone의 성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

- ⇒ 전세계를 생산사슬(production chain)로 활용하는 유연한 경영방식의 도입이 긴급

④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충

- 일본은 2부문 경제로서 수출형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내수형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편
- 2007년 기준 산업별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보면 제조업은 1.9%로서 전기가스에 이어 두 번째인데 비해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은 생산성이 전년에 비해 후퇴

산업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및 생산성 지수(2007년 기준)



자료 : 일본생산성본부

- 이러한 서비스업 부진은 '고도의 제조능력(모노쓰꾸리)'을 중시하는 일본적 풍토에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데다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부족*, 동 부문에 대한 투자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당연시하는 풍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주체로서 서비스업의 발전이 지체

⇒ 서비스업 부진이 일본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는 데다 내수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원책이 필요